

F1 없어도 영암서킷은 질주

내년, 17개 자동차 대회 개최... 관람객 15만여명 기대

국내외 완성차·타이어회사 성능시험 예약 30억 수입

내년에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도 열리지 않지만 F1 주경기장인 영암 서킷에서 17차례 자동차 경주가 열리는 등 전남도가 영암 서킷(KIC)을 활용해 3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8월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비롯해 국내 4개 대회 17차례 경기가 이미 개최를 확정되었으며, 국제대회인 슈퍼지터와 대회 유치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대회 일정은 확정된 경기는 ▲CJ슈퍼레이스(5월 4일부터 4전) ▲KSF(6월 20

일부터 5전) ▲넥센타이어스피드레이스(4월 6일부터 4전) ▲한·중모터스포츠페스티벌(8월 24일부터) ▲코리아스피드레이스(일정 조율 중 4전 ▲KMF(3월 23일부터 4전) 등이다.

또 국내외 완성차 회사와 타이어 회사의 성능 시험 예약을 받아, 이날 현재 95일 동안 이들 회사에 영암 서킷을 대여하기로 했다.

하루 영암 서킷 임대료가 900만원~3600만원에 달해 전남도는 자동차 대회 유치와 경주장 임대료를 통해 내년 한해 3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대회 유치와 임대를 통해 27억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국내외 자동차 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내년 영암 서킷 관람객 수도 올해보다 2만여명 증가한 1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암 서킷에서 열리는 대회의 평균 하루 관람객은 2000여명에 이른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경주장이 필요한데 영암 서킷은 세계적인 대회인 F1을 치를 만이기에 때문에 국내외 기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1일~2014년 3월 9일, 영암 서킷을 달릴 수 있는 ‘KIC 동계 시즌 회원제’를 운영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 1조4000억 채무보증 떠안아

목포대양산단·여수웅천지구 등 10건... 재정위기 우려

감사원 “전국 36곳, SPC 관련 우발채무 5조 육박”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시행자(SPC)에 대해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 서는 바람에 1조4000억원 가량의 채무보증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월 기준으로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추진한 총 39개 사업에서 발생한 우발채무가 4조9332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53.9%에 달하는 것으로, 이 중 22개 지자체와 3개 지방공기업은 그 해 예산보다 20%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

채무보증을 썼다. 광주·전남지역은 10건 1조4261억원에 이른다.

목포 대양산단사업자가 289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진곡산단 2800억, 여수 웅천지구 2386억, 나주 미래산단 2000억, 장성 나노산단 1268억,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900억, 영광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599억, 동함평산단 550억, 강진 환경산단 431억, 광양 신금산단 428억원 등이다. 특히 광주 진곡과 장성 나노, 영광 대마·진내, 강진 환경, 광양 신금 산단 등은 지방자치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2010년 영광군에서는 대마일반산단단지

조성을 위해 군이 900억원을 채무 보증한 한 SPC의 대표이사가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사업자금 89억원을 무단 인출하는 범죄 행위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채무는 모두 해당 SPC가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면 지자체가 상환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는 우발채무다.

감사원은 “지자체에서 민간의 사업비 전액을 채무보증을 해서 사업위험을 부담했을 때는 재정사업에 준하는 관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그간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투·융자 심사 같은 관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 지자체에 재정위기가 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철도파업 후 첫 인명사고... 노조지도부 10명 강제구인

하차하던 80대 승객 사망

KTX 오늘부터 감속운행

철도파업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된 열차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파업 장기화로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파업 주도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은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섰다.

지난 15일 밤 9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정사역에서 승객 김모(여·84) 씨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여 사망했다. 이 사고가 난 열차에 탑승해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차장은 대체 투입된 교통대학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파업 초기부터 불거진 대체인력 투입 안전성 논란은 점점으로 치닫게 됐다.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이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선 1명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노조원들이 16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길에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검찰은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에 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X도 감속운행된다.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17일부터 행선을 출발해 광주역으로

오는 오전 7시15분 열차와 광주에서 용산으로 가는 11시 50분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 용산을 출발해 목포역으로 가는 오후 3시20분 열차와 목포에서 행선으로 가는 오후 7시 25분 열차도 운행이 중지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에도

8000억여원 성과급 지급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채 증가에도 총 8천억여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철도공사 등 전국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에 대해 진행했다.

지방 공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008년 1313억원, 2009년 1554억원, 2010년 176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1841억원에 달했다.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을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가 2918억원이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 1815억원, 부산교통공사 101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5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1조6000억원이었던 부채는 2009년 41조5000억원, 2010년 45조3000억원, 2011년 49조100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2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관계자는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민간 기업이라면 직원에게 많은 성과급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에 재무상태를 연계해 영업손실이 크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환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7080충장축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선정... 전국 8곳

광주7080충장축제

강진청자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그럼으로 평가받았다.

강진청자축제는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가 지정 집중육성축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등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비만 47억7700만원에 이른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개최 35년 만에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로 길이 2.8km가 폭 40여m로 열리는 시기에 맞춰 개최되며,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우수 축제에 선정됐다.

충장축제는 2010년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지정된 데 이어 2011년 우수축제로, 2014년 최우수축제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거리퍼레이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프로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면 국비지원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사용, 축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국내외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현명대로 246번길 3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1월 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목)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은 추후 통지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장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